

# 장마철 다가오는데... '오보청' 오명 벗을까

### 3시간 단위 정밀분석으로 맞힘률 60%대 기상청 "기술력 한계...정확한 예보 노력"

7월 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청의 날씨예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는 '오보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기상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기상 유무 '정확도'와 '맞힘률'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상청은 지난달부터 3시간 단위로 예보하고, 지속적인 기상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해 강수유무 정확도는 92.8%, 맞힘률은 66%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정확도 92.2%, 맞힘률 64%), 2016년(정확도 92%, 맞힘률 65%), 2017년(정확도 91.8%, 맞힘률 62%)보다 나아지지 않은 수치다.

정확도(ACC)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강수예보대로 비가 온 경우(H)와

강수예보를 안 했을 때 비가 안 온 경우(C)의 비율(강수예보 정확도)이며, 맞힘률(POD)은 비가 왔을 때 예보가 맞는 비율을 뜻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강수예보 정확도와 맞힘률 등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김 모씨(61)는 "하늘에 먹구름이 있어도 비 예보가 없으면 우산을 집에 그냥 두고 나올 때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 그럴 때 비가 오는 날이 많다"며 "오죽 하면 주변에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비 예보와 반대로 우산을 들고 다녀라', '우리나라보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고 조언을 해주겠다"라

고 말했다.

윤 모씨(31)는 "예보가 얼마나 맞지 않으면 기상청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 비가 온다는 소리까지 들리겠다"면서 "엘리노 등에 따른 기상이변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강수예보 정확도는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고집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올해부터 3시간 단위 기상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상변화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간·풍속·파고 등을 정량화해서 기상용어에 익숙치 않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변경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자연현상의

일부인 대기는 끊임없이 불규칙하게 변하기 마련이다"면서 "예보는 확정된 사실을 발표하는 게 아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100%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상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보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예보분야 경력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미래의 기상을 맞추는 것에 있어 현재 과학기술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확도와 맞힘률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기상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8~30	순천	20~31	광양	20~30
나주	17~29	여수	21~28	목포	19~26

일출 05:18 일몰 19:50  
월출 22:14 월몰 07:39

장성	17~29	흑산도	18~24
담양	17~30	구례	17~31
화순	16~30	곡성	16~30
영광	18~27	완도	19~29
함평	17~28	강진	18~29
무안	17~27	장흥	17~30
영암	17~29	해남	17~28
진도	18~26	고흥	17~29
신안	19~26	보성	16~28

목포	만조 04:16 16:02	여수	만조 10:42 23:22
	간조 09:27 21:19		간조 04:53 16:3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후임 광주·전남경찰 수장은 누구?

### 내부조직 승령...광주, 장하연 정보국장 거론 전남청장엔 김재규 사이버 안전국장 하마평

경찰 고위직 정기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의 치안을 책임지는 차기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광주·전남 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 인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전남에선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규현 광주경찰청장과 최관호 청장의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광주청장엔 분청 장하연 정보국장이(치안감·경찰대 5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목포 출신인 장 국장은 경무관 시절 전북청 1부장과 전주완산경찰서 등의 인연으로 전북청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2지망인 광주청 인착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장 국장은 총경시절 분청 정보 4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정보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특히 노동계 관련 정보나 집회상황 등에 대한 특화된 역량을 갖췄다는 평이다.

경찰대 수석 졸업 타이틀에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 추후 치안정감 유력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전남청장엔 김재규(치안감·경찰대 2기) 분청 사이버 안전국장인 거론되고 있다.

고흥 출신인 김 국장은 전남경찰청 보안과장·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서울청 홍보담당관 등을 지냈다. 조직 내부에선 현장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홍보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찰 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으로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엔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관련 내용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선 분청 치안정감 인사를 시작으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국토 대청결 운동 장마를 앞두고 19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에서 열린 국토 대청결 운동에 참가한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기관·단체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지적장애 친구 주점에 팔아넘긴 비정한 20대들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유흥주점에 취직시켜 돈을 가로채려 한 비정한 2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영리유인 혐의로 A씨(23·여)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께 경기 팽택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23·여)를 유인해 목포까지 데려온 뒤, 유흥주점에 취직시켜 수백만원대 선불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년원이나 쉼터에서 각각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여성 4명과 남성 1명은 B씨를 취직시켜 선불금을 나눠 쓰기로 하고 목포로 향했다. B씨에게는 "바다구

경을 시켜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애초 지인을 통해 B씨를 주점에 취직시키려 했으나 유흥업소 업주가 채용을 거부했다. 계획이 틀어지면서 일행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중 한 명이 'B씨를 술집에 넘겨려 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전남 오후 2시께 호남고속도로 정읍 톨게이트에서 A씨 일행이 탄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김동균 기자

## 가출 중학생에게 "금은방 털어라" 절도교사·절도미수 10대 2명 검거

가출 중학생에게 절도행각을 지시한 10대와 이를 따라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가출 청소년에게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라고 지시한 정 모군(18)과 정군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훔쳐다 미수에 그친 김 모군(13)을 절도교사 및 절도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정군은 지난 18일 오후 9시 40분께 동구의 한 금은방 앞에서 중학생 김군에게 귀금속을 훔치도록 지시하고, 김군은 둔기로 외벽 유리를 부수려다 깨지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범행 현장에서 붙잡힌 김군은 가출 후 함께 지낸 정군의 지시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김군은 출동한 사설경비업체에 의해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됐으며, 정군은 복귀 자택에 있다 김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나라 기자

## 오토바이-승용차 충돌...2명 사망

19일 오전 11시 24분께 보성군 조성면 한 사거리에서 A씨(84)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B씨(48·여)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C씨(81)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접촉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베지밀 전숙모밀  
강석우 내연신 부부

★ 신제품 출시 ★

##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간장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살게 결정당질, 올리고당

국산 검은콩 함유  
Vegemil 베지밀  
항아리고 건강함 5060 시니어두유  
Soy Milk for Senior Citizens

1 주문 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림 트러스트 www.edaymal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8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 경기: 동부영양소 (02)552-8807 \* 부산영양소 (02)999-3382 \* 대구영양소 (053)250-8888 \* 광주영양소 (032)254-8888 \* 대전영양소 (042)254-8888 \* 충청영양소 (042)254-8888 \* 강원영양소 (033)254-8888 \* 전북영양소 (056)254-8888 \* 전남영양소 (061)254-8888 \* 경북영양소 (054)254-8888 \* 경남영양소 (055)254-8888 \* 제주영양소 (064)254-8888